

# 코로나19 위기와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

장인성\*\*

실업률과 고용률 등 전통적 고용 지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상황지수(LMCI)를 작성하고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후퇴기와 회복기에 노동시장 상황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의 변동 등과 같이 고용 조정이 노동시장상황지수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 반면 코로나19 위기 시에는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의 변동 등의 역할이 더 컸다.

## 1.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노동시장의 위축은 미래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였고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였다.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기나 회복기에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활용되어 왔으나, 개별 고용지표는 각각이 가지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지표들의 서로 다른 움직임을 종합하여 해석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특히 월간 시계열에서는 종종 지표들의 움직임이 상반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표들로부터 공통된 시그널을 추출하여 종합적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그동안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로 사용되어 온 실업률이

\* 이 글은 장인성 외(2021),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고용에 미친 영향』의 제4장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ijang@kli.re.rk).

노동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전통적인 노동시장 지표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판단하기 위해 비자발적 단시간근로, 장기실업자 수 등의 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Yellen(2014)은 노동시장의 상황 평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다양한 지표들에 담긴 정보를 종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 노동시장의 19개 지표들로 구성된 노동시장상황지수(Labor Market Conditions Index)를 통해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해 볼 때 실업률이 전반적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음을 지적하였다.

Zmitrowicz and Kahn(2014)은 8개 노동시장 지표를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LMCI를 측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평가한 결과, 실업률이 시사하는 만큼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취업률(job finding rate)과 장기실업률이 그러한 차이점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주 연령층(prime age)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구직률이 노동시장의 느린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ker and Ball(2018)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의 노동시장 상황 추이를 LMCI를 통해 계산한 결과, 일본과 미국의 LMCI는 노동시장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포화(tight)된 상태이지만 실업률이 시사하는 수준만큼 포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의 LMCI는 위기 직후 노동시장 상황이 실업률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악화되었으며, 유로지역에서는 LMCI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았다. 최근 Botelho and da Silva(2019)는 유로지역의 18개 노동시장 지표를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유로지역 노동시장의 수준 및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작성된 노동시장상황지수는 2019년 2분기의 유로지역 노동시장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최고 수준과 유사한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진·박재현(2015)이 10개의 노동시장 지표들을 활용하여 2005~2015년 월별 LMCI를 시산한 바 있다. 지수작성에 활용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민간부문 고용률, 불완전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실업률, 해고율, 자발적 퇴직률, 임금상승률, 그리고 주당평균근로시간이다. 시산 결과 LMCI는 개별지표보다 경기동행성이 높게 나타나 경기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노동시장 유희역량(labor market slackness) 지표로서 유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저자들은 LMCI가 실업률 값에 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전반적 유희생산능력의 평가에 유리하므로 추가적인 지표들을 검토하여 지수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들을 추가로 작성하여 노동시장상황지수의 구성에 활용함으로써 위기 시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변화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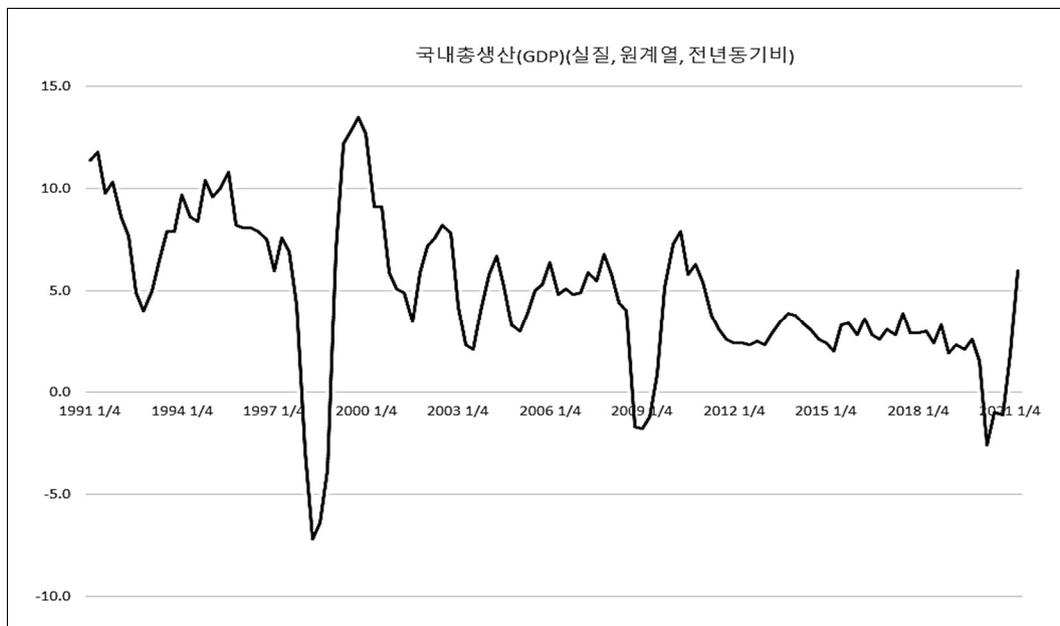
## II.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

### 1. 코로나19 위기와 과거 위기의 경기 변동 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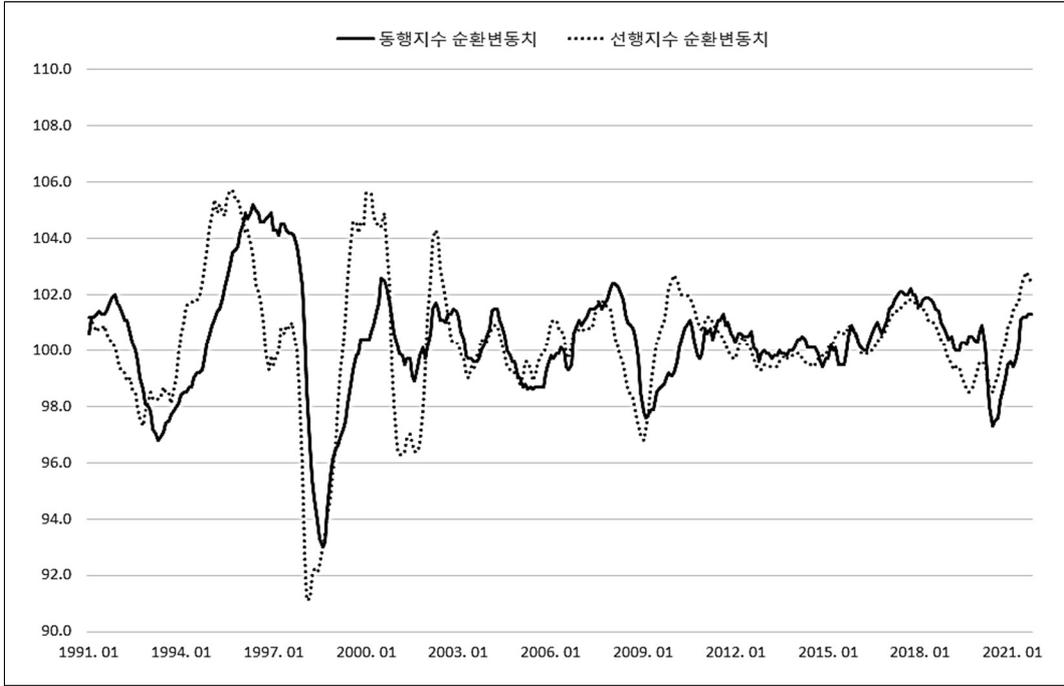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성장률과 경기종합지수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질성장률과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그림 1]에서 보듯이 후자의 경우 추세가 제거된 수치라는 점을 제외하면 변동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계정을 토대로 분기별로만 발표되는 데 비해 경기종합지수는 매일 작성되므로 경기 변동을 보다 신속하게 알려준다. 두 수치 모두 1990년 이후 장기적으로 경기의 변동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변동의 폭 역시 1998년 외환위기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해서도 작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 경기는 2021년 6월 시점에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수준을 넘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며 선행지수는 이미 2020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림 1] 우리나라 실질성장률과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 추이

#### a. 실질성장률



b.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자료 : 통계청.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의 발생 후 경기동행지수의 저점까지의 변동 폭 및 도달 기간을 비교하면, <표 1>에서와 같이 외환위기는 10개월간 10.7 하락, 금융위기는 12개월간 4.8 하락, 코로나 위기는 4개월간 3.5 하락하여 코로나19 위기의 경기 하락 폭이 가장 작았으나 금융 위기에 비하면 하락 속도는 더 빨랐다. 위기 발생 후 저점으로부터 경기동행지수 100선을 회복하는 데 걸린 기간을 비교하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는 각각 15개월, 13개월, 10개월로 코로나 위기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표 1> 외환위기, 금융위기 및 코로나 위기의 경기동행지수 하락 폭 및 기간 비교

	동행지수						하락 폭	하락기간 (월)	회복기간 (월)
	위기 직전 시점	위기 시 저점		회복 시점					
외환 위기	1997. 10.	103.7	1998. 8.	93	1999. 11.	100.4	10.7	10	15
금융 위기	2008. 2.	102.4	2009. 2.	97.6	2010. 3.	100.1	4.8	12	13
코로나 위기	2020. 1.	100.7	2020. 5.	97.2	2021. 3.	100.2	3.5	4	10

주 : 하락기간은 위기 발생 전 경기동행지수의 고점으로부터 위기 발생 후 저점에 도달하는 시기까지로 정의하며, 회복기간은 위기 발생 후 경기동행지수의 저점으로부터 100선을 회복하는 시점까지로 정의함.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은 위와 같은 경기동행지수의 움직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그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노동시장상황지수(LMCI)의 작성에는 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이 활용되며, 이는 다양한 구성 지표들을 서로 직교하는(orthogonal) 공통적인 요소의 선형결합으로 치환한 후 첫 번째 주성분을 추출하여 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 각각의 구성 지표들은 먼저 계절조정을 실시하고 끝점편의(end-point bias)를 완화하기 위해 자료의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후까지의 ARIMA 예측치를 구하여 자료에 더해준 후 HP 필터를 통해 추세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지표 간 통일성을 위하여 표준편차로 나누어 정규화(normalize)해준 후 주성분 분석에 이용한다.

## 2. 개별 노동시장 지표의 변화와 노동시장상황지수의 작성

노동시장상황지수(LMCI)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별 노동시장 지표들이 필요하다. 미국의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작성하는 캔자스시티 연준(Kansas City Fed)은 <표 2>와 같이 총 24개의 노동시장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볼 때 고용 수준, 실업 및 불완전고용 상태, 근로시간, 임금, 구인/이직, 노동이동성, 그리고 각종 예측 등 서베이 지수에 속하는 지표들로 구성된다. 유로 지역의 노동시장상황지수를 작성한 Botelho and da Silva(2019)의 경우 18개의 지표들로 LMCI를 구성하였는데 핵심연령층 및 청년고용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로지역 각국을 포함한 지수의 특성상 실업률의 지역 분포도 지표로서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선진국 노동시장상황지수에 주로 포함되는 경제활동참가율, 민간부문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실업률, 해고율, 구인구직비율, 자발적 이직률, 임금상승률, 그리고 주당평균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존 지표들에 더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몇 가지 지표를 작성하여 추가하였다.<sup>1)</sup> 우선 청년층 및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전체 고용률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고용률 제고 여부가 정책적 중요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20대 청년층과 30대 여성의 고용률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상당히 높고 임금근로와 자영업 간의 이동 및 자영업자에 의해 고용되는 임금근로자의 변동 등을 통해 노동시장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변동을 지수에 포함하였다.

1) 본고에서 해고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에서 좁은 의미의 해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폐업 및 도산',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에 기인한 상실자의 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상실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 그리고 월별 구인구직비율은 해당 월에 워크넷(Work-Net)에 등록된 신규구인인원을 신규구직건수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표 2〉 해외 노동시장상황지수의 구성 지표 비교

Chung et al.(2014)	Kansas City Fed(2020)	Botelho and da Silva(2019)
<b>실업과 불완전고용</b>		
실업률	실업률	실업률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자발적 파트타임	불완전고용률
	실업률보조지표(U6)	숙련불일치
실업급여 수급률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률	실업률지역분포
5주 미만 실업자	27주 이상 실업자	장기실업률
	비자발적 실업자	3개월 미만 실업률
<b>고용</b>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민간부문(private payroll) 고용	민간부문 고용	핵심연령층고용률
정부 고용	고용률	취업자 수
임시직(temporary help) 고용	임시직 고용	청년고용률
<b>근로시간</b>		
생산직 평균근로시간	주간총노동시간	평균근로시간
직장 평균근로시간		
<b>임금</b>		
생산직 시간당 임금	평균 시간당임금	실질시간당임금
		시간당노동생산성
<b>구인/이직</b>		
복합구인지표		노동력부족률
		미충원일자리
<b>채용</b>		
채용률	채용률	구직률
실업/취업 전이율	실업/취업 전이율	
<b>사직</b>		
사직률	사직률	이직률
5주 미만 퇴직자수	자발적 이직자수	
<b>서베이</b>		
일자리 잉여율(job availability)	기대 일자리 잉여율(U Michigan)	PMI 고용지수
	기대 일자리 잉여율(Conference Board)	
기업순채용계획	채용계획기업비중	
미충원일자리비율	미충원일자리비율	
	제조업고용지표	
	발표된 일자리감축	
	실업률 예측(Blue Chip)	
	일자리 잉여지표(Conference Board)	

자료 : Chung et al.(2014); Kansas City Fed(2020); Botelho and da Silva(2019).

그리고 특히 실업률이 노동시장 유희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 불완전고용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부진으로 인한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자의 비중과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업부진 및 폐업으로 인한 실직 후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사람의 비중을 각각 작성하여 포함하였다. <표 3>은 각 지표들을 정규화(normalized)한 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시 침체기와 회복기의 변동 폭을 비교한 것이다.

<표 3> 정규화된 노동시장 지표의 금융위기와 코로나위기 시 침체기와 회복기의 변화 폭 비교

구성지표	침체기		회복기	
	금융위기 2008. 2.~2009. 2.	코로나위기 2020. 1.~5.	금융위기 2009. 2.~2010. 3.	코로나위기 2020. 5.~2021. 3.
사업부진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자수 (경찰 원자료)	0.16	1.63	-0.16	-0.95
사업부진 실직 비경제활동 비중 (경찰 원자료)	0.24	0.32	-0.15	-0.18
평균근로시간 (경찰 원자료)	-1.8	-2.0	-0.8	0.7
구인구직비율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21.9	-10.6	27.8	12.8
해고율 (고용보험통계)	0.48	0.14	-0.43	-0.14
경제활동참가율 (경찰 원자료)	-0.9	-1.6	0.0	0.3
민간고용률 (경찰 원자료)	-1.2	-1.7	-0.4	0.4
실업급여 신청률 (고용보험통계)	0.48	0.21	-0.33	-0.1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수 (경찰 원자료)	-0.30	-0.15	0.09	-0.32
임시직 고용률	-0.6	-0.8	0.0	0.4
실업률 (경찰 원자료)	0.25	0.51	0.37	-0.28
자발적 이직률 (고용보험통계)	0.00	-0.40	0.08	0.26
여성 30대 고용률 (경찰 원자료)	-3.4	-2.1	1.3	0.1
20대 청년 고용률 (경찰 원자료)	-2.0	-2.7	0.5	1.2

주: 1) 괄호 안은 각 지표의 자료 출처.

2) 회복기간은 위기 발생 후 경기동행지수의 저점부터 100선을 회복하는 시점까지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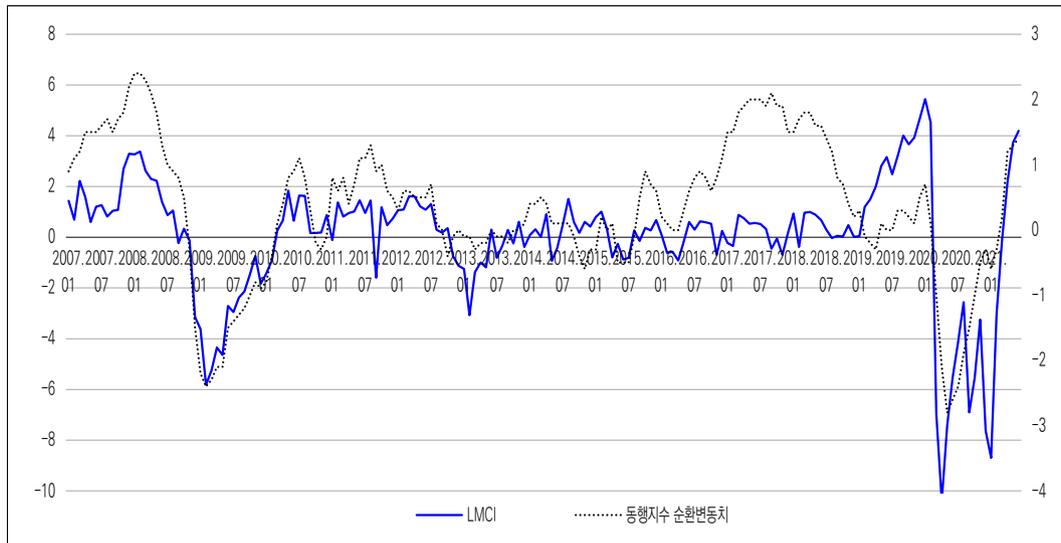
3) 민간고용률은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의 취업자를 제외한 민간부문 취업자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수치이며 임시직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별 구분에서 임시근로자의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것.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위기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해고율, 구인구직비율, 실업급여 신규신청률 등의 변동 폭은 작고 사업부진으로 인한 비자발적 단시간근로는 변동 폭은 크다. 이는 고용량을 조정하기보다 휴직이나 근로시간의 조정 등으로 대처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발적 이직률의 코로나19 위기 시 변동이 더 컸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에 자발적인 이직을 더욱 자제하였던 것이다. 둘째, 20대 청년의 고용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 빨랐으나 30대 여성 고용의 회복은 더 느렸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학교 및 돌봄 시설의 운영 중지로 인한 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경기회복기에도 고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수출 호조, 비대면 산업의 확대 등을 통해 경기회복이 이루어졌지만 대면 사업들이 많이 포함된 자영업의 경우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 III. 노동시장상황지수를 통해 본 코로나19 위기 시 노동시장의 변화

15개 구성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한 노동시장상황지수(LMCI)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시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큰 틀에서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변화의 폭은 노동시장상황지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하락한 이후 2009년 2월 97.6으로 저점에 도달하고 다시 점차 상승하여 2010년 3월 100.1을 기록하였다. 노동시장상황지수 역시 같은 시점인 2008년 11월 -0.1로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9년 2월 -5.8로 저점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2월 0.3으로 회복하였다. 경제위기의 본격화 및 회복을 알리는 시점은 두 지수가 동일하나 노동시장상황지수의 하락 폭이 현저히 더 크다. 코로나19 위기 역시 노동시장상황지수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침체로 진입하는 시기가 2020년 3월로 동일하였으나 저점에 도달한 시기는 노동시장상황지수가 2020년 4월로 더 빨랐으며, 침체에서 벗어난 시기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3월로 노동시장상황지수에 비해 한 달 정도 더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시 저점에서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2였으나 노동시장상황지수는 -10.4로 후자의 변화 폭이 더 컸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비교해도 노동시장상황지수의 하락 폭이 두 배가량 더 컸다. 그리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두 위기 때 모두 저점에 도달한 후 경기 회복 시까지 지속적인 반등 추세를 유지한 데 비해, 노동시장상황지수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시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4~5개월 간격으

[그림 2] 15개 구성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된 노동시장상황지수(LMCI)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비교(2000~2021. 6)



주 : 좌축은 LMCI, 우축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 100을 뺀 수치.  
 자료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통계청, LMCI는 저자.

로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된 확진자 증감 추세의 변동 및 방역 수준의 엄격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기 진입 직전 노동시장상황지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실제 이 시기의 고용 관련 수치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노동시장상황지수가 HP 필터를 사용하여 각 구성 지표들의 추세를 제거한 후 변동성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시계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필터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끝점편의(end-point bias)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Chung et al.(2014)은 노동시장상황지수의 해석 및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지수의 수준(level)이 노동시장의 완전고용상태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LMCI의 수준이 아닌 변화율을 계산하고 분해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상황지수를 구성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개별 지표들이 전체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경기동행지수에 비교했을 때 노동시장상황지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후퇴기와 회복기에 각각의 노동시장 구성 지표들이 노동시장상황지수에 기여한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서 두 위기 시의 노동시장 상황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

〈표 4〉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상황지수 변화에 대한 각 구성 지표별 기여도 비교

(단위: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후퇴기(2008.2~2009.2)		회복기(2009.3~2010.3)		후퇴기(2020.1~2020.5)		회복기(2020.6~2021.3)	
실업급여 신규 신청률	18.6	실업급여 신규 신청률	23.4	경제활동참가율	14.6	비자발적 단시간근로	18.0
여성 30대 고용률	13.6	해고율	17.8	비자발적 단시간근로	14.3	사업부진 실적	16.2
해고율	12.9	구인구직비율	16.4	민간고용률	12.7	임시직 고용률	11.8
사업부진 실적	11.9	사업부진 실적	12.7	사업부진 실적	12.0	20대 청년 고용률	9.3
구인구직비율	11.5	여성 30대 고용률	12.4	20대 청년 고용률	9.6	민간고용률	8.1
20대 청년 고용률	7.1	20대 청년 고용률	7.3	여성 30대 고용률	7.6	구인구직비율	7.7
경제활동참가율	7.0	임시직 고용률	6.8	임시직 고용률	7.6	실업급여 신규 신청률	7.6
민간고용률	6.6	경제활동참가율	4.6	실업급여 신규 신청률	6.6	경제활동참가율	7.6
임시직 고용률	6.4	비자발적 단시간근로	2.3	실업률	3.6	자발적 이직률	4.8
비자발적 단시간근로	1.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6	구인구직비율	3.5	해고율	3.8
실업률	1.4	자발적 이직률	0.5	자발적 이직률	3.5	실업률	2.6
평균근로시간	0.9	명목임금상승률	0.3	해고율	3.2	평균근로시간	1.4
명목임금상승률	0.3	평균근로시간	-0.2	평균근로시간	1.0	여성 30대 고용률	1.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	0.3	민간고용률	-0.7	명목임금상승률	0.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	0.2
자발적 이직률	-0.5	실업률	-4.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	명목임금상승률	0.0

자료: 저자 작성.

기 시의 경기후퇴기는 각각 2008년 2월~2009년 2월, 2020년 1월~2020년 5월로 정의하며, 경기회복기는 각각 2009년 3월~2010년 3월, 2020년 6월~2021년 3월로 정의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률의 증감이 노동시장상황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률의 변동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새롭게 실직한 사람 외에도 기존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표로서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시작으로 인한 실업 증가는 주로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므로 신규실업자의 증가와는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는데 실업률에서는 이 두 집단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 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 이 집단은 경기후퇴기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실업률의 경우에서처럼 비자발적 실업자와 혼재될 경우 노동시장 움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어렵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규 신청률은 신규실업자 가운데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비자발적 실업자들만으로 구성되므로 고용시장의 상황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여성 30대 고용률, 해고율, 사업부진으로 인한 실직, 구인구직비율의 변동 역시 노동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 30대 고용률의 경우 두 위기 모두 경기후퇴기에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컸으며, 경기회복기에는 노동시장 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 위기 시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회복은 가장 늦게 되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해고율의 경우에는 경기후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 커서 경기후퇴기에 타격도 크게 받지만 회복 또한 비교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시 노동시장 상황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는 명목임금상승률, 평균근로시간 등으로 나타난다. 명목임금은 경직성이 존재하는 부문이며 평균근로시간 역시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보다 추세적 하락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특히 두 수치는 모두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평균 수치이므로 경제위기 시 타격을 크게 받는 한계 근로자들이 실업을 할 경우 오히려 이들 수치의 평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자발적 단시간근로가 경기후퇴기 및 회복기의 노동시장 상황 변동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실업급여신청률의 변동이 큰 역할을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고용의 조정이 소위 노동시장의 외적 경계(extensive margin)에서보다 내적 경계(intensive margin)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실직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의 경우 두 위기 모두에서, 그리고 경기후퇴기와 경기회복기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동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업률은 이러한 집단을 구분하여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 노동시장상황지수에 새롭게 추가한 이들 집단은 경기후퇴기에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경기회복기에는 비교적 크게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코로나19 위기 때 가장 타격을 입은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상황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앞서 언급한 필터링 기법의 한계로 인한 인위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제거되고 나면 노동시장 상황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시사점

노동시장의 상황은 성장률이나 경기종합지수의 변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그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국은 노동시장상황지수(LMCI)를 작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4월에 노동시장상황지수 수준이 -2.3까지 하락하였으나 1년 후인 2021년 4월에는 장기 평균 수준인 0을 넘는 0.27을 기록하였으며 8월에는 1.01로 위기 이전인 2019년 8월의 1.1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선진국 노동시장상황지수에 주로 포함되는 기존 지표들에 더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몇 가지 지표를 작성하여 추가하였다. 총 15개 구성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한 노동시장상황지수(LMCI)는 경제위기 시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큰 틀에서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변화의 폭은 노동시장상황지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 때 모두 저점에 도달한 후 경기 회복 시까지 지속적인 반등 추세를 유지한 데 비해, 노동시장상황지수가 특히 코로나19 위기 시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4~5개월 간격으로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된 확진자 증감 추세의 변동 및 방역 수준의 엄격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후퇴기와 회복기에 각각의 노동시장 구성 지표들이 노동시장상황지수에 기여한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두 위기 시의 노동시장 상황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률의 증감이 노동시장상황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률의 변동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여성 30대 고용률, 해고율, 사업부진으로 인한 실직, 구인구직비율의 변동 역시 노동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여성 30대 고용률의 경우 경기후퇴기에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컸으나 경기회복기에는 노동시장 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 위기 시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회복은 가장 늦게 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해고율의 경우 경기후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 커서 경기후퇴기에 타격도 크게 받지만 회복 또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은 비자발적 단시간근로가 경기후퇴기 및 회복기의 노동시장 상황 변동에 큰 역할을 한 점이다. 실업급여 신규신청률의 변동이 큰 역할을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고용의 조정이 소위 노동시장의 내적 경계(intensive margin)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실직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중은 두 위기 모두에서, 그리고 경기후퇴기와 경기회복기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동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집단은 경기후퇴기에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경기회복기에는 비교적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유희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혹은 전년 동기대비 변화 역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나 고용률 등 특정 지표의 전년동기대비 변화율에만 의존하여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노동시장상황지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동시장지표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향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 및 효과적 정책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KLI]**

### [참고문헌]

- 이동진·박재현(2015), 「노동시장 상황지수(LMCI) 시산 및 활용방안 검토」, 『조사통계월보』, 2015년 10월호, 한국은행.
- Baker, Alexandra and Meika Ball(2018), “Indicators of Labour Market Conditions in Advanced Economies,” *Bulletin*, Reserve Bank of Australia.
- Botelho, V. and António Dias da Silva(2019), “Indicators of labour market conditions in the euro area,” *ECB Economic Bulletin*, Issue 8/2019.
- Chung, H. T., B. Fallick, C. J. Nekarda, and D. D. Ratner(2014), “Assessing the Change in Labor Market Conditions,” *Finance and Economic Discussion Series*, The Federal Reserve Board.
- Kansas City Fed(2022), <https://www.kansascityfed.org/data-and-trends/labor-market-conditions-indicators/>
- Yellen, Janet L.(2014), “Labor Market Dynamics and Monetary Policy,” Remarks by Janet L. Yellen, Chair,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Economic Symposium, Jackson Hole, Wyoming.
- Zmitrowicz, K. and M. Khan(2014), “Beyond the Unemployment Rate: Assessing Canadian and U.S. Labour Markets Since the Great Recession,” *Bank of Canada Review*, May, pp.42~53.